

인생 대화 공식	
14차시	전달력을 높이는 목소리 & 발음법

〈1〉 많은 사람 앞, 떨지 않고 말하는 방법

[구연동화]

#1 완벽한 매너와 좋은 인품으로 많은 후배들이 따르는 김부장. 그런 김부장에게 오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목소리 인데요. 나이와 맞지 않는 어린 목소리, 그리고 말투로 인해 오해받는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

#2 실제로 만났을 때는 괜찮은데, 전화 통화만 하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만나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! “목소리와 얼굴이 매칭이 잘 안되시네요”

#3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. 마이크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을 때 특히 그랬어요. 목소리가 작고 가늘다 보니, 듣는 사람들의 집중도가 점점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

#4 힘있고 울림 있는 목소리를 지닌 배우들을 보면 부러워했습니다. 나도 연습하면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? 고민만 하다 시간은 갑니다. 우리 김부장의 목소리 고민, 해결할 수 있을까요?

[1]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

- 목소리는 제2의 얼굴이다. 이미지가 좋아지고 매력이 생기는 것 뿐 아니라, 좋은 목소리를 가지면 얻게 되는 장점들이 생각보다 더 많다.
- 말은 결정적인 순간 나 자신을 변호하고 구해내고 끌어올리는 강력한 삶의 무기이다. 목소리는 그런 말의 날개와 같다.
- 말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목소리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. 앞서 언급한 ‘메라비언의 법칙’에 따라서 설득력을 갖춘 내용에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더한다면 말에 힘을 실을 수 있다.
- 게다가 편안하고 좋은 발성의 목소리는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인다.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떠올렸을 때도 좋은 발성, 좋은 목소리가 자동으로 재생된다.
- 힘있고 울림 있는 목소리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말에 신뢰감까지 생기게 한다.
- 내가 가진 소리를 제대로 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기 효능감(self-efficacy)을 키우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.
- 자기 효능감 : 스스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나 신념을 말한다.
- 목소리는 타고난 외모처럼 바꾸기 어려운 영역이 아닌 나의 노력에 의해 자기 계발이 가능한 영역이다.
- 운동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.
- 매일 사용하는 말을 담는 목소리에 발전이 있다고 스스로 느끼게 되면 말을 하는 행위에도 자신감이 붙는다.
- 그렇다면, 좋은 목소리란 어떤 목소리일까? 좋은 목소리란 내기 편한 소리, 듣기 편한 소리다.
- 불안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톤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리거나, 답답하게 들린다.
- 반면 듣기 좋은 소리는! 마치 좋은 금관 악기처럼 시원하고 뽕 뚫린 느낌이다. 편안하게 들린다.

- 이렇게 편안하게 소리를 내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.

[2] 나만의 톤을 찾고 만드는 세 가지 방법

-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톤은 저마다 다르다.
- 낮은 목소리를 원한다고 해서 그 톤을 흉내내면 오히려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.
- 악기로 생각해보자. 콘트라베이스는 아주 낮은 저음을 담당하는 악기이다. 첼로는 중간, 바이올린은 높은 음역대를 담당한다.
- 그런데 바이올린인 사람이 콘트라베이스를 따라하겠다고 낮은 음만 낼 경우 갖고 있는 음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게 들린다.
- 일반적으로 악기가 작으면 고음, 클수록 저음을 내는데 사람도 이게 어느정도 적용된다.
- 포인트는 이처럼 타고난 고유의 톤이 있다는 것! 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.
- 나는 바이올린일까? 콘트라베이스일까? 아님 중저음인 첼로일까? 다음의 방법으로 알아보자.

1) 노래방

- 평소 노래를 부를 때 고음에 강한가? 저음에 강한가? 아니면 중간톤? 이렇게 평소 음역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떤 악기와 가까운지 1차로 힌트가 생긴다.
- 나는 고음이 특히 잘 안됐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중저음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는건 알고 있었다. 한 번 떠올려보자. 전반적으로 고음 저음 다 잘 된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악기를 타고 난 것.
- 그런데 그렇게 음역대가 넓다 해도 그 중 특히 편안한 음이 있다.
- 자 이제 세부적인 내 톤을 찾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자.

2) 목울대

- 대략적인 내 목소리 음역대의 위치를 잡고 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소리내보며 나의 톤을 찾아보는 방법이다.
- 먼저, 이를 위해 목울대의 위치를 확인하자.
- 목을 짚었을 때, 가운데 동그랗게 잡히는 부분에 손을 대자.
- ‘도레미파솔라시도’ 음계를 소리내보자.
- 음이 높아질수록 점점 울대가 올라간다.
- 이 때, 소리를 내지 않았을때 잡히는 원래 목울대의 위치를 확인해보자.
- 바로 그 음으로 평평하게 소리를 내보자.
- 이렇게 말할 때 목울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음이 나라는 악기가 타고난 고유 음이다.
- 그 음대로 편안하게 내는 걸 연습하면 된다.

3) 세도잉

- 들으면서 따라하는 세도잉은 주로 영어 학습법에서 엄청 많이 쓰인다. 한 문장씩 말을 듣고 바로 따라하며 연습하는 방법이다.
- 우리말, 좋은 목소리를 만들때도 적용 가능하다.
- 이 때 나와 음색이 비슷한 롤 모델을 찾으시면 더 빠르게 발전이 된다. 프로 방송인을 찾은 뒤, 그분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.
- 이럴 때는 이 음을 이렇게 내는구나, 한 문장 안에서 말의 높낮이를 활용하는 방법, 호흡까지 따라하며 배울 수 있다.
- 매일 연습해보면 특히 빨리 발전할 수 있다.
- 평소에 말을 할때도 ‘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?’를 떠올리며 말 습관을 개선해보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.

[3] 안정적인 목소리를 위한 호흡법

- 듣기 좋은 목소리를 내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호흡을 제대로 내는 것이다.
- 타고난 음색 자체는 좋은데, 호흡이 불안정한 목소리는 어딘가 좀 불안하게 느껴진다.
- 따라서 편안하게 낼 수 있는, 들리는 호흡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다.
- 호흡을 개선하는 첫 번째 방법 1) 복식호흡
- 발성의 기본은 복식호흡이다. 배로 숨쉬고 내쉬고 하는 방법 평소에 이거 꾸준히 연습하면 좋다.
- 일단 시작은 말을 할 때 목에 힘을 주는게 아닌 아랫 배에 힘을 주면서 말을 해보자.
- 숨을 쉴 때 코로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부풀리고 내쉴때 입으로 조금씩 내쉬는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좋다.
- 평소에도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하시면 좋다.
- 배에 힘을 주고 말하면 목으로 말할때 보다 확실히 소리가 힘있게 나온다.
- 타고난 성량이 좋은 분들도 있다. 그런 분들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더 좋은 소리가 나올수 있다.

호흡을 개선하는 두 번째 방법 2) 긴 호흡

-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도 짧은 호흡으로 말하면 불안하게 들린다.
- 안정적이고 편안한 좋은 목소리에는 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.
- 운동을 통해 폐활량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내 호흡 안에서, 숨을 조금씩 분배해서 내쉬는 방법도 있다
- 크게 들이쉴 다음, 후~ 하고 내쉬어버리는게 아니라 말할때 호흡을 쓰듯이 조금씩 쉼-쉼-쉼-쉼- 끊어서 쓰는것.
- 이 연습은 긴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하시면 좋다.
- 숨 쉴 구간을 체크하고, 그 때까지는 숨을 들이쉬지 않는 것이다.
- 먼저 불안하게 들리는 호흡 예시이다.

ex) “인간 본성은(쉬고) 결코 선하지 않으며(쉬고) 모든 관계는(쉬고) 심리전이다!”

숨가쁘게 들린다. 오 이 사람 아나운서같다 라고 프로처럼 느껴지시는 사람들은 호흡이 대부분 일반인보다 길다. 호흡 조절만 잘 해도 목소리까지 훨씬 좋게 들린다.

ex) “인간 본성은 결코 선하지 않으며, (참고) 모든 관계는 심리전이다!”

숨을 한번도 안 쉬었다. 심표 구간에서는 잠깐 숨을 멈췄다.

- 뉴스 리딩이나 원고 리딩을 할 때 방송 전 아나운서들 원고를 보시면 이 띄어쓰기 구간, 숨 쉴 구간 업, 다운 구간이 자세하게 표시되어있는데 바로 이 때문이다.
- 내 목소리가 유독 불안하게 들릴때 말하는 문장이 길어지고, 숨이 너무 짧지 않았는지 한 번 되돌아 보자.
- 가장 좋은 연습방법은 책읽기이다. 책을 읽을 때 숨쉬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해서 읽어보자.

[4] 울림 있는 소리를 만드는 방법

- 좋은 목소리는 울림이 있는 소리이다.
- 울림을 만들기 위해 좋은 발성,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. 바로, 입 안 공간의 확보다.
- 이것만 개선해도 빠르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. 말을 할 때, 입 안의 실평수를 늘리는 방법이다.

1) 입 동굴 만들기

- 말을 하는 입 안의 공간, 동굴을 만들어 울림을 주는 방법이다.
- 입 안을 동굴처럼 둥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, 가장 방해가 되는 부위가 있다. 바로 혀 이다.

- 치아나 다른 공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혀만큼은 우리가 의지에 따라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. 답답한 목소리는 이 혀가 입천장에 가까이 붙어있다.
- 막히지 않고 시원한 소리! 동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구멍과 입천장 사이를 많이 확보해주어야 한다. 이를 위해 말할 때 이 혀를 살짝 내려주는 것.
- 혀를 내리면 좀 더 입 안에서 울려서 밖으로 나오는걸 느낄 수 있다.
-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입 모양을 확실히 벌려주면 좋다.
- 좋은 울림을 만들기 위해선 입 안 공간, 특히 혀의 위치를 좀 내려서 말해보자.
- 그 다음 이렇게 만든 공간에서 소리를 내는 방법을 소개한다.

2)'허'하고 한숨 쉬기

- 평소에 한숨을 쉴 때 하...하듯 소리를 내보자.
- 하 상태에서 소리를 허..로 바꿔보자
- 그럼 뒤에 목구멍이 열리는 느낌이 난다.
- 이렇게 목구멍을 허 하고 연 상태로 입만 하~ 해보자.
- 한숨을 쉬듯 목구멍이 열린 기분으로 소리를 내주는 것.

〈2〉 전달력을 높이는 발음법

[구연동화]

#1 “네?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?” 선영씨가 말을 할 때,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. 선영씨는 요즘 그런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

#2 말이 중요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이지요. 고객사 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후임들까지 가르치고 업무를 전달해야 하는데요. 자신의 말투가 업무 효율을 떨어트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

#3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. 그럴 때 선영씨의 말은 마치 ‘아웃사이드’ 같아요. 다다다다다다 말하고 나면 꼭 상대는 다시 그 질문을 합니다.
“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될까요?”

#4 웅얼거리는 발음, 급한 성격이 자신의 가장 큰 문제인가 생각합니다.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의 옆 팀 과장처럼 말투를 바꿔야 하나 고민입니다. 이런 우리 선영씨의 말투,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?

[1] 발음 개선이 중요한 이유

- 말투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담긴다. 성격이 급한 사람의 말이 빠르거나 느긋한 사람의 말이 느린 것처럼 말이다.
- 물론 말하는 스타일에 정답은 없다. 각자의 성향이나 업무에 따라 최적화된 스타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.
- 하지만 의사 소통이 한 번에 되지 않고 타인이 나의 말을 여러 번 되묻는 것과 같은 불편함을 느낀다면 전달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진다.
- 특히 타인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말이 중요한 일을 한다면 소통의 질을 떨어트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업무에 유리하다.
- 발음 개선은 전달력을 높이고 강단 있는 말투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.
- 발성의 개선이나 목소리의 개선이 꾸준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발음은 약간의 노력으로도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.

- 게다가 목소리가 작고 발성이 좋지 않더라도 발음이 좋으면 명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.
- 작은 목소리는 마이크와 같은 기술의 도움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이유에서다.
- 반면 뭉개지고 전달력이 아쉬운 발음은 기술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.
-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익혀둔 뒤 매일 사용하는 말에 바로 적용해보자. 내가 하는 말에 조금 더 전달력이 높아진 것을 체감할 것이다.

[2] 모음 발음 확실히 하기

- 발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? 대부분은 말 할때 입모양이 정확하지 않아서, 입을 제대로 벌리지 않아서이다. 모니터링을 해보면 특히 바로 알게 된다.

“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”

- 거울을 보며 자연스럽게 애국가를 읊조려보자. 내 입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- 발음이 좋으려면 혀와 입이 정확한 위치에 가 있어야 하는데, 입을 안 벌리니 그게 어려운 것. 입과 혀를 지금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연습부터 해야한다.
- 예시에서 모음만 빼보면 다음과 같다.

TTT TTT TTT

- 소리 내서 읽어보자. 우 발음에선 입을 확실하게 모으고 아 발음에선 벌리고 이중모음인 와에선 오아 이렇게 입을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.
- 이제 다시 읽어보자. 확실히 발음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.
- 특히 잘 안되는 발음은 입을 동그랗게 오므리는 발음이 많다.
- 대표적인 모음이 바로 ‘원순모음’이다.
- 아, 어처럼 평평하게 입을 벌리는 발음은 입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가능하다.
- 반면 입을 동그랗게 만들어야하는 ‘원순모음’은 조금 더 많은 입의 움직임이 필요하다.
- 모음에 신경을 쓴 다음에는 특히 이 원순모음 오,우,외,위에 입 모양을 확실하게 해주자.
- “우리집에 놀러와” 으르릅으르르

극단적으로 입을 안 움직이고 이를 꼭 깨물고 말하면 이런 발음이 된다.

치아를 떨어트려 입 공간을 만들어준 뒤, 입을 아 에 이 오 우 움직여주자.

- 집에서 연습을 해보고 싶다면, 아에이오우에 자음만 바꿔서

가계기교구

나네|니|노누

식으로 ㄱㄹㄲㅁ순으로 ㅎ까지 쭉 풀어서 연습해보자.

- 특히 ‘오, 우, 외, 위’ 처럼 입을 많이 오므리고 내미는 원순모음을 할 때 입 모양을 제대로 만들면 발음이 이전보다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.

[3] 소리를 머금지 말고 뱉기

- 소리가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, 입안에서 멤도는 경우가 있다.
- 이런 경우, 발음이 더 안으로 먹혀서 전달력이 떨어진다.
- 발음이 좋게 들리려면~ 소리가 좀 더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게 밖으로 뱉어져야 한다.
- 입을 안 벌리는 케이스 중에 사람들이 네?? 하고 여러번 내 말을 되물은 적이 있는가?
- 그렇다면 소리를 머금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.
- 이럴 때, 소리를 먹지 말고 시원하게 밖으로 뱉는 습관을 들이는 것.

- 평소의 말투에 잠깐 억울함을 한방울 떨어트려 보자. 억울한 상황에서 따질때처럼 말하는 것이다. 따질때 소리가 먹히는게 아니라 뱉어진다.
- 특히, 약간 공격조로 말하는 투로 연습해보면 좀 더 소리가 앞으로 나간다. 내가 살짝 화가 났다, 약간의 분노를 담아 소리를 뱉어보는 연습이다.
- 소리를 머금고 말하면 발음도 안 좋아보인다.

Ex) “치킨은 죄가 없다구요~~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!! 알잖아요??”
이렇게 혼자 소심하게 중얼중얼 하는 느낌에서,

Ex) “치킨은 죄가 없다구요~~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!! 알잖아요??”
어때요 좀 다르죠 소리를 머금지 않고 뱉기! 기억해주세요.

[4] 천천히 말하기

- 전문 배우나 성우처럼 전달력이 중요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, 말이 빨라지면 발음도 조금씩 뭉개진다.
- 처음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되었을 때, 방송 선배들이 해 준 0순위의 조언도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었다.
- 떨리고 마음이 급해질수록 말이 점점 빨라지고, 그러다 보면 말이 꼬이기 때문이다. 의식적으로 천천히 여유를 가지며 말하면, 좀 발음이 씹히거나 말이 잘못 나오는 경우도 줄어든다.

“무 궁 화 삼 천 리 화 려 강 산”

-> “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”

- 발음의 개선이 쉽게 되지 않는다면 평소 말하는 속도를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이다.
- 위의 예시처럼 먼저 평소 속도보다 느리게 애국가를 읽어보자. 자 다음으로 조금 더 빨리 읽어보자. 마지막으로 방금보다 더 빨리 읽어보자.
- 이렇게 속도를 높여보면 발음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. 그 이유는 입 모양에 있다.
- 천천히 말할 때는 입을 오므리고 벌리는 모양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.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하기 유리해지는 것.
- 이렇게 조금 더 느리게 말을 했다가 익숙해진 뒤 조금씩 속도를 높이는 연습으로 발음의 정확도를 높여보자.
- 만약 나도 모르게 말이 점점 빨라진다면 의식적으로 한 번씩 제동을 걸어주면 발음이 꼬이고 뭉개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.
- 내가 좀 빨라지고 있구나! 느끼고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일정한 스피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. 평소 나의 말을 녹음해두고 모니터해보거나, 카메라를 켜놓고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

[5] 강조할 단어 또박또박 말하기

- 뉴스나 보도처럼 신속, 정확함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발음이나 강세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.
- 반면 예능 프로그램이나 행사 진행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.
- 이 때 발음은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.
- 일상의 말하기도 마찬가지다. 아나운서 지망생이 아니라면, 완벽에 가까운 발음 보다는 상황에 맞게 전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다.
- 특히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이나 소규모 회의 등에서는 전달력이 곧 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것과 직결되는 효과가 있다.
- 일상의 대화에서도 상대가 나의 말을 여러 번 되묻는 일을 줄여 원활한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기

수월해진다.

- 앞의 방법들로 전반적인 발음이 개선되었다면 마지막 방법은 강조해야 할 단어의 발음을 신경 써 말하는 것이다.
- 프리젠테이션이나 발표처럼 설득을 하거나 주장을 해야 하는 경우, 특히 강조해야 하는 단어들이 있다.
-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, 다른 말 보다 중요한 단어에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면 강조의 효과가 생긴다. 이 때 정확한 발음과 더불어 해당 구간에서 속도를 천천히 해주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.

Ex) “우리 회사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투명한 소통입니다.”

“예전부터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거 알아?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.”

“우리 채널의 주 타깃층인 K-POP 팬덤이 현재 무엇에 가장 열광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.”

- 예시의 ‘바로’처럼 중요한 단어를 말하기 전! 꾸며주는 말이 보인다. 여기서, ‘바로’ 다음의 단어에 집중하는 것.
- 만약 문장을 적는다면 특히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 싶은 구간을 생각해보자. 이 따옴표 안의 중요한 단어의 발음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. 그럼 강조의 효과 생긴다.
- 이렇게 강조할 부분의 발음을 정확히 했다면 앞 뒤의 문장은 빨리, 흘러 말하더라도 중요한 핵심은 전달이 가능해진다.
- 마지막으로 여기에 잠시 멈춤 스킬까지 더해진다면요! 강조의 효과를 완성할 수 있다. 밑줄 친 단어 ‘투명한 소통’ 전, 1초 정도 잠깐 멈추는 효과를 주어 읽어보는 것.

ex) “우리 회사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(v) 투명한 소통입니다.”

- 잠시 멈춤은 흐름상 뒤의 말을 더욱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.
- 더불어 멈추는 사이 강조할 단어의 발음을 위해 입모양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 잠깐의 시간을 벌 수 있기도 한다.
- 자, 그럼 오늘의 스킬들을 하나씩 떠올려보며 아래 문장을 한 번 소리내, 읽어보자.

ex) “물벼룩은 녹조를 먹어 치워 녹조 현상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.

물벼룩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데요.

바로 녹조 속 치명적인 박테리아 독을 섭취해, 이를 자신의 체내 곰팡이를 제거하는 약으로 쓰는 것입니다.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곤충에게는 치명적인 독성인데요. 유독 물벼룩에게는 이러한 독이,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약이 된다는 겁니다.”